

위탁생산 늘리는 삼성·LG

저가 스마트폰 공세 대응... 원가절감으로 경쟁력 확보

삼성전자

기준 충족시 일정 부분 ODM생산

LG전자

중가 라인업까지 외주 생산 적용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제조자개발생산(ODM)과 합작개발생산(JDM)을 늘리고 있다. 중저가 스마트폰의 경우 자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ODM과 JDM을 이용하는 것이 원가 절감에 도움을 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생산 목표로 잡은 3억1100만대의 스마트폰 중 6000만대(20%)를 ODM 방식으로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3000만대 보다 2배 늘어난 수치다.

삼성전자 IM 부문장 고동진 사장은 지난 8월 "130달러(약 16만원) 이하 모델을 삼성이 자체 생산하기는 어렵다"면서 "우리 기준을 충족한다면 ODM으



갤럭시A50.

/삼성전자

로 일정 부분 생산하는 게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갤럭시A6s에서 처음으로 ODM을 적용한 이후 저가폰을 위주로 ODM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출시 모델 중에는 갤럭시A10s, 갤럭시A20s, 갤럭시A60 등이 ODM으로 생산됐다. FCC에 따르면 내년 출시될 갤럭시A01도 중국 화진텔레콤이 ODM

생산을 맡았다.

LG전자는 내년부터 스마트폰의 외주 생산을 늘린다. LG전자는 지난 3분기 실적발표에서 "기존 저가 제품 위주이던 스마트폰 외주 생산을 내년부터 중가 라인업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내년에는 약 2000만대를 ODM으로 제작할 전망이다.

LG전자는 최근 실속형 스마트폰 2

종 'LG K50S', 'LG K40S'를 JDM 방식으로 공급했다. 이 제품은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와 멕시코, 브라질, 파나마 등 중남미 주요국에 연이어 출시됐다.

LG전자는 이 같은 생산 방식이 스마트폰 사업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과 생산에 드는 비용을 줄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품질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외주 생산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ODM은 제품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외부 업체에게 맡기고 최종 검증을 거친 후 브랜드만 붙여서 판매하기 때문에 주문 업체의 개입이 없는 반면, JDM은 주문 업체가 제품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후 제품설계, 부품 조달 등은 외부 업체와 협력해 공동 진행하며, 생산은 외부 업체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LG전자는 "특히 특정 분야에서 전문

성을 가진 외부 역량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곧 내부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내부의 역량을 미래사업 준비와 같은 핵심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ODM과 JDM 같은 외부 생산 방식이 가격 측면에서 이점이 큰 게 확실하지만 무한정으로 늘리기는 어렵다. 외부 생산 업체들이 보통 중국에 모여 있는데 외부 생산이 늘어나면 국내 부품업체는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스마트폰 부품업체 관계자는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실적을 위해 ODM을 늘리는 게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업체의 매출은 바로 떨어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측면에선 중국 업체의 저가 스마트폰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생산 방식을 점차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한샘, 연말 맞아 가구·생활용품 할인

한샘몰 앱 통해 구매시 추가 5%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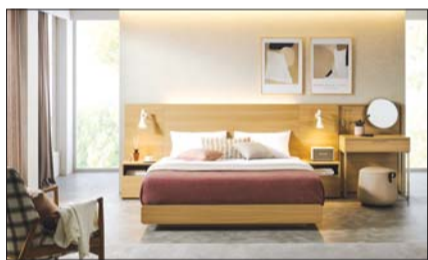
한샘은 연말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온라인 한샘몰, 오프라인 매장 한샘디자인파크, 한샘인테리어 대리점에서 인기 가구 및 생활용품을 할인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온라인 한샘몰에서는 베스트 가구 10종을 선정해 최대 37% 할인 판매한다. 리클라이너 소파 중 상품후기 1200여개에 달하는 '한샘 뉴 프라이머 리클라이너'는 4인용 기준 22% 할인하고 천연 고무나무 원목을 집성해 만든 '한샘 포레 릴리스 4인식탁 세트'도 25% 싸게 판다.

'한샘 샘배딩 옷장', '한샘 슬라이핑크 매트리스 SS', '한샘 샘키즈 수납장' 등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생활용품 10종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한샘과 '러그랜드'가 공동 기획한 '그래프모던 워셔블 러그'는 69% 할인한다.

이벤트 기간 중 한샘몰 앱을 통해 구매하면 추가 5% 할인 쿠폰을 지급받을



한샘 유료 502 네스트 오크 침실

수 있다.

전국 오프라인 매장 한샘디자인파크와 한샘인테리어 대리점에서도 31일까지 매트리스와 침대 8종 ▲유로 502 ▲유로 501 코튼그레이 ▲밀란301 ▲모아 ▲바흐702 ▲유로602 ▲유로603 ▲유로604를 함께 구매하면 침대를 50% 할인한다.

이탈리아 '마스트로토'의 천연 소 가죽을 사용한 프리미엄 소파 '유로 601'은 최대 18%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깔끔한 모던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리클라이너형과 일반형 중 선택 가능하다. '유로 402' 소파는 최대 28%, '밀란 303' 소파는 최대 17%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bada@

해외시장으로 눈 돌리는 외식업계

“신남방 넘어 중동·아프리카... K-푸드 세계 공략”

내수시장 포화상태... 돌파구 모색
한류열풍 장기화로 K-푸드 관심 ↑

최근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동남아시아를 넘어 미지의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가 대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포화 상태에 접어든 내수 시장을 벗어나 해외 시장 도전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 찾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8년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수가 2배 이상 많은 일본보다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수가 무려 3.5배(한국 4621개, 일본 1339개)나 많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프랜차이즈 포화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프랜차이즈 전체 가맹본부의 7.6%는 해외진출 경험이 있으며, 12.3%가 향후 해외 진출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업종은 커피(16.8%), 치킨(16.2%), 한식(15.8%) 등 외식업 진출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국내 외식업계의 해외 진출은 주로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한류 영향권인 '신남방' 지역에 편중됐지만,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중동 등 국내 프랜차이즈의 미개척지로 분류되는 지역까지 속속 진출하며 해외 시장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다날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 브랜드 달콤커피는 국내 식음료 프랜차이즈 최초로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매장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현지 프랜차이즈 사업 확대에 나섰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굽네치킨 호주 시드니 '달링 스퀘어점'

/굽네치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약 10개 매장을 운영 중인 달콤커피는 최근 모로코 카사블랑카에 현지 마스터 프랜차이즈 1호 점인 '오션 스토어'를 개점했다.

매장은 모로코 최대의 상업도시인 카사블랑카 중심부의 쇼핑 핫플레이스인 마리나 쇼핑몰에 입점했다. 달콤커피는 정통 커피에 익숙한 현지 소비자들에게 에스프레소, 과일 등을 얼린 큐브를 활용한 '큐브 시리즈', 생자몽의 풍부한 과육을 달콤하게 담은 '허니몽' 등 달콤커피만의 차별화된 메뉴를 비롯해 배란다라이브 등 K-POP, 한류 드라마 제작 지원 등 문화 마케팅으로 한국형 카페의 매력을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홍콩, 일본, 베트남 등에 진출해온 굽네치킨은 최근 호주 1호점인 시드니 '달링 스퀘어점'을 개점하며 첫 오세아니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굽네치킨의 호주 1호점은 시드니의 최대 번화가로 북합리조트 및 테마파크 등이 활성화돼 유동인구가 활발한 세계적인 명소인 달링 허버에 위치해 있다. 인근에는 오피스 상권이 형성돼 직장인 고객이 유입되고, 주말에는 주변 관광명소를 찾

은 관광객 및 호주 현지인과 한국인 유학생 등이 매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호주에서는 건강식을 비롯해 한국식 치킨과 김치를 함께 먹는 식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어 오븐에 구워 기름을 빼고 담백한 맛을 살린 굽네치킨이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태국, 캄보디아 등에 해외 매장을 보유한 설빙은 쿠웨이트의 '무할라브알가남' 그룹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며 중동 진출을 선언했다. 중동 지역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가로 알려진 쿠웨이트는 1년 내내 30도가 넘는 열대성 사막 기후를 갖고 있어 빙수를 주력으로 한 디저트를 선보이는 설빙에 제격이다. 또한 중동까지 뻗어나간 한류의 인기를 기반으로 현지 내 한국 음식과 디저트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한류 열풍이 장기 확대됨에 따라 K-푸드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그간 주로 진출했던 아세안 지역을 넘어 신규 해외 시장에 도전할 발판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박민용 기자 parku7854@

CJ대한통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실버택배 등 사회공헌 활동 인정

CJ대한통운의 실버택배 등 지역밀착형 CSV·사회공헌활동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으로 뽑혔다.

CJ대한통운은 지난 3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2019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자사의 CSV 사업 모델인 '실버택배'

를 비롯해 '발달장애인 택배', '희망나눔 숲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지역내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해 격려하는 제도다.

/김승호 기자